

<2010년 9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>

1.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자들은 책임을 한 자들이다. 고로 사망 지옥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다.
2. 생명권에 와서도 생명권 세계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하면 또 사망권의 주관을 받게 된다.
3. 잠깐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도 몸부림치면서 행해야 겨우 존재하며 산다. 하물며 영과 영원한 세계를 위해 책임을 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느냐. 나는 책임을 하는 자를 늘 돕는다.
4. 육신에 속한 책임을 한 것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동안 쓰여지지만, 영을 위해 책임을 한 것은 영원히 쓰여진다.
5. 책임을 한 자는 산 자요, 책임을 못 한 자는 죽은 자다.
6. 죽은 자는 행해도 사망권에서 행하고, 산 자는 행해도 생명권에서 행한다. 살고서 행하여라.